

수행과 의례로서의 관상에 대한 고찰

김치은*

- I. 머리말
- II. 관상수행
- III. 의례로서의 관상
- IV. 나오는 말

요약문

아함경류에 의하면 관상수행은 6년에서 10년으로 염(念)의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염불은 불세존이 행한 법을 염하거나 여래의 열 가지 명호를 염하는 것에서 여래의 형상을 관하고 여래의 공덕을 염하는 것으로 변화하여 왔다. 이어서 불상이 조성되자 염불의 대상은 불상을 앞에 두고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심상을 관함으로써 분명하게 부처님의 색신을 보게 되는 것으로 나아간다. 염불의 결과로 열반에 이른다고는 하나, 천상에 이른다고도 하고 『좌선삼매경』의 경우는 초선에 이르기 전의 욕계 선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정하지가 않다.

대승불교에서는 염불삼매에 의해 나타난 모든 부처는 수행자의 마음이 지어낸 것으로 삼계가 유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염불삼매는 마음의 청정성으로 공(空)한 상태이며 모든 법의 실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관상이 의례에 섭입되는 것은 불상 앞에 향화 등축으로 공양하고 염불삼매를 얻기 위해 불상을 관하는 것에서 보여진다. 또한 부처를 관하여 염불삼매 즉 반주삼매 속에서 부처로부터 심선계를 받거나, 관정을 받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밀교의 사상(事相)들이 성불을 위한 방편으로 정립되면서 관상은 인계와 진언과 더불어 실지성취로 가는 내용이 되고 있다. 밀교에서 실지성취의 대표적인 의례로 손꼽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연구교수, kimchion@hanmail.net

히는 호마법이 관상으로 이루어지며, 윤단(輪壇)과 오부(五部)의 불보살님들을 관상하고 공양을 올리고는 그 윤단의 불보살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관상하여 불보살의 가치를 도모한다. 더 나아가 유가행자가 관상과 더불어 인계와 진언으로 오상성신관을 성취하고 십육의 금강보살을 관상함으로써 각 금강보살의 지혜와 공덕을 성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관상은 수행의 중요한 한 방편이며, 의례에서는 시작점이며 빠져서는 안되는 핵심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관상, 6념, 염불, 염불삼매, 삼계유심, 수계의 관상, 관정의 관상, 호마의 관상, 실지성취

I. 머리말

불교수행의 방편으로 흔히 지관(止觀)을 말하기도 한다. 관상수행을 지관에서 찾아 본다면 곧 관(觀)에 포함될 것이라 생각된다. 관한다는 것은 곧 관찰한다는 것이고 관찰은 곧 관찰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마음의 상(想)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초기 불교의 아함에서부터 밀교에 이르기까지의 관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아함에서는 관상수행의 성립이라는 관점에서 관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대승불교에서는 관상을 통해 증득되는 염불삼매의 증득내용 및 활용 등에 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밀교에 의례가 섭입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관상이 밀교의례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럼 먼저 아함경류에 나타난 관상수행에 대해서 살펴본다.

II. 관상수행

1. 관상수행의 성립

관상수행이라 하면 넓게는 관하는 상(想)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인 의미로서는 부처를 관상하는 수행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처를 관상한다는 것과 유사하게 부처를 염(念)한다고 하는 즉 염불이라는 용어

가 초기 아함경에 나온다. 염불(buddhānusmṛti)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붓다(buddha)에 대한 반복적인(anu) 마음지킴(smṛti)이라 할 수 있다. 『잡아함경』이나 『증일아함경』에서는 붓다에 대한 반복적인 마음지킴을 포함하여 6년 혹은 10년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잡아함경』 550 「이경(離經)」에는 반복적인 마음지킴 혹은 마음지킴의 대상으로 여섯 가지를 설하고 있다. 그 여섯 가지의 대상은 부처[佛]와 법[法]과 승가[僧] 그리고 계[戒]와 보시[施]와 하늘[天]이다. 그것은 존자 마하가전연이 여러 비구들에게 설하는 것으로, 6년 가운데 염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룩한 제자는 여래 · 응공 · 등정각께서 행하신 법은 깨끗하며, 여래(如來) · 응공(應供) · 등정각(等正覺) · 명행족(明行足) · 선서(善逝) · 세간해(世間解) · 무상사(無上士) · 조어장부(調御丈夫) · 천인사(天人師) · 불세존(佛世尊)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제자는 여래 · 응공께서 행하신 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탐욕의 감정[貪欲覺] · 성내는 감정[瞋恚覺] · 해치려는 감정[害覺]을 여의나니, 이러한 거룩한 제자는 물들어 집착하는 마음[染着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떤 것을 물들어 집착하는 마음이라 하는가? 이른바 다섯 가지 욕망을 말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욕망에 대한 탐욕 · 성냄 · 어리석음을 여의어, 바른 기억과 바른 앞에 편안히 머물고 올곧은 길에 오르며, 부처님에 대한 생각[念佛]을 닦아 익히면 바로 열반으로 향할 것입니다.”¹⁾

위의 내용에서 보면 염불을 말하고 있기는 하나, 불세존이 행하신 법이 불세존으로 간주되므로 염불은 곧 불세존이 행한 법을 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염법(念法)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어서 나온 내용에서 보면, 바른 법[正法]을 생각하고, 세존께서 설하신 현세의 법과 율[世尊現法律]을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²⁾ 세존께서 설하신 현세의 법과 율은 물론 바른 법이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1) 求那跋陀羅 譯, 『雜阿含經』(대정장 2권 143p 중-하), “謂聖弟子念如來應等正覺所行法淨, 如來應等正覺,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世尊, 聖弟子念如來應所行法故, 離貪欲覺, 離瞋恚覺, 離害覺, 如是, 聖弟子出染着心, 何等爲染着心, 謂五欲功德, 於此五欲功德離貪, 癡, 安住正念正智, 乘於直道, 修習念佛, 正向涅槃.”

2) 求那跋陀羅 譯, 『雜阿含經』(대정장 2권 p. 143 하), “復次, 聖弟子念於正法, 念於世尊現法律, 離諸熱惱, 非時通達, 卽於現法緣自覺悟, 爾時, 聖弟子念此正法時, 不起欲覺瞋恚, 害覺.”

해석된다. 『별역잡아함경』 156경에도 역시 6념을 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염불은 불세존이 설한 법을 염(念)하는 것이 아니라 여래의 열 가지 명호(名號)를 염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염불의 그 결과는 열반으로 나아간다³⁾고 하고 있다.

『증일아함경』에 이르면 불(佛), 법(法), 승(僧), 계(戒), 시(施), 천(天) 등의 6념에 휴식(休息), 안반(安般), 신(身), 사(死) 등 4념을 더하여 십념을 설하고 있다. 「십념품」, 「광연품」, 「칠일품」 등 세 곳에서 설하고 있다. 「칠일품」의 내용은, 바이살리에 비라선(毘羅先, Virasena)이라는 장자가 과거 많은 복을 지어 많은 재물을 지녔으나 새로운 복은 짓지 않아서 7일 후에 죽어 채곡지옥(涕哭地獄)에 떨어질 운명이었다. 하지만, 아난의 가르침에 따라 붓다의 교단에 출가하여 짧은 시간이었지만 10년 수행을 행함으로써 죽어서도 사천왕천에 태어났다⁴⁾고 한다.

「십념품」과 「광연품」에서는 10년의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른다고 하고 있는데, 「광연품」에서는 염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한 법을 닦아 행하면 곧 좋은 명예(名譽)가 있게 되고, 큰 과보(果報)를 성취하여 온갖 선(善)이 널리 모이고 감로(甘露)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無爲處：涅槃]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고 사문과를 체득하며,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 ‘혹 어떤 비구는 몸을 바르게 가지고 뜻을 바르게 하여 가부좌하고 앉아, 생각을 매어 앞에 두고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부처님만을 생각한다. 여래의 형상을 관(觀)하되 잠시도 눈을 떼는 일이 없게 하고, 눈을 떼지 않고 나선 곧 여래의 공덕을 생각한다. 여래의 본체는 금강(金剛)으로 이루어졌고 10력(力)을 원만하게 갖추었으며, 네 가지 두려움이 없어 대중들 속에서 용감

3) 失譯, 『別譯雜阿含經』(대정장 2권 p. 426 하), “諸比丘等, 亦復如是。爲涅槃故。修於六念。何等爲六。一者念於如來應供正遍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當于爾時。無有貪欲瞋恚愚癡。唯有清淨質直之心。以直心故。得法得義。得親近佛。心生歡喜。以歡喜故。身得猗樂。以身樂故。其心得定。以得定故。怨家及己親族。於此二人。無怨憎想。心常平等。住法流水。入於定心。修念佛心。趣向涅槃。是名念佛。”

4) 僧伽提婆譯, 『增壹阿含經』「七日品」五(대정장 2권 pp. 739 중-740 상).

하고 씩씩하시다. 여래의 얼굴은 단정하기 짝이 없어 아무리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계(戒)의 덕을 성취한 것이 마치 금강과 같아서 부술 수 없고 티가 없이 청정하기는 마치 유리와 같다.”⁵⁾

위의 내용에서 부처를 염(念)한다는 것은 여래의 형상을 관하고 여래의 공덕을 염하는 것이다. 여래의 형상으로서 구체적으로 새겨진 조각상이나 그려진 그림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가부좌한 상태에서 마음을 모아 여래의 형상에 집중해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와 함께 여래의 공덕을 생각한다고 하였다. 여래의 공덕은 여래의 덕성을 말하고 있다. 곧 여래의 본체는 금강과 같고 십력과 사무소외, 단정한 여래의 얼굴, 여래의 계(戒), 삼매, 지혜의 몸, 해탈, 해탈지견 등이다. 한 마음으로 여래의 형상을 관하고 공덕을 염(念)함으로써 비구는 온갖 선이 모이고 무위처(無爲處)에 이르며 신통력을 얻고 사문과(沙門果)를 체득하여 스스로 열반에 이른다고 하였다.

아함경에서 관상수행은 크게 6년에서 10년으로 염(念)의 대상이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염불은 불세존이 행한 법을 염하고 여래의 열 가지 명호를 염하는 것에서 여래의 형상을 관하고 여래의 공덕을 염하는 것으로 변화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래를 크게 형상과 공덕으로 규정되어 가는 과정이라 여겨진다.

선관 경전 가운데 『좌선삼매경』에서 갖가지 병통을 다스리기 위한 5종 법문은 유부의 오정심관(五停心觀)⁶⁾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⁷⁾ 하지만 『좌선삼매경』에서는 오정심관의 계분별관 대신에 염불법문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염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 염불법문은 등분(等分)⁹⁾을 다스리기 위한 법문이

5) 僧伽提婆譯, 『增壹阿含經』(대장장 2권 p. 554 상), “世尊告諸比丘。當修行一法。當廣布一法。已修行一法。便有名譽。成大果報。諸善普至。得甘露味。至無爲處。便成神通。除諸亂想。逮沙門果。自致涅槃。云何爲一法。所謂念佛。…… 世尊告曰。若有比丘正身正意。結跏趺坐。繫念在前。無有他想。專精念佛。觀如來形。未曾離目。已不離目。便念如來功德。如來體者。金剛所成。十力具長。四無所畏。在衆勇健。如來顏貌。端正無雙。視之無厭。戒德成就。猶如金剛。而不可毀。清淨無瑕。亦如琉璃。”

6) 오정심관은 부정관(不淨觀), 자비관(慈悲觀), 인연관(因緣觀), 수식관(數息觀), 계분별관(界分別觀) 등이다. 오정심관이란 용어 자체는 인도불교의 용어가 아니고 중국불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7) 明神 洋, 『禪觀經典における念佛觀』, 『佛教學』 제35호, 山喜房佛書林, 1993.

다.¹⁰⁾ 경전은 중죄를 지은 사람은 일심으로 염불삼매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면서, 세 가지 사람에게 맞추어 염불을 수습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즉 처음 수습을 행하는 사람, 이미 수습을 행하고 있는 사람, 오랫동안 수습을 행하고 있는 사람 등이다.

“다섯 번째 법문은 등분을 다스리는 행이다.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은 부처님을 찾으니,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삼매를 가르쳐야 한다. 염불삼매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으니, 초습행(初習行)·이습행(已習行)·구습행(久習行)이다. 만일 초습행의 사람이라면 불상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거나, 혹은 스스로 가게 하여 불상의 상호를 잘 보게 한다. 모습 모습이 명료해지면 한마음으로 지니고 조용한 곳으로 돌아가 마음의 눈(心眼)으로 불상을 관조하여 마음이 돌아다니지 않게 하고, 생각을 묶어 불상에 두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한다. 다른 생각을 거두어서 항상 불상에 머물게 한다.”¹¹⁾

『좌선삼매경』에서의 염불은 앞서 아함경류의 내용과는 달리 불상(佛像)의 상호를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서는 분명해진 그 모습을 한적한 곳에서 심안(心眼)으로 관상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이 계속되면 문득 심안을 얻어 붓다의 형상과 광명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아닌 과거의 석가모니불의 모습이다.

“이와 같이 하여 그만두지 않으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리라. 이때 문득 마음의 눈을 얻어 불상의 모습과 광명을 보리니, 눈에 보인 그대로여서 다름이 없다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마음이 머물면, 이것을 ‘처음으로 익혀서 행하는 이의 사유(思惟)’라고 한다. 이때 마땅히 다시 생각해서 ‘이것은 누구의 모습인가? 바

8) 阿部貴子, 「界 Dhātu의 觀想」, 『밀교학연구』 44, 2012.

9) 等分은 性實見·着我見·斷·常의 네 가지 견해가 모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성실견이란 본질적인 궁극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이며, 착아견은 나에게 집착하는 견해이고, 단견은 일종의 염세주의로서 이 세상은 단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상견은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견해이다.

10) 鳩摩羅什 譯, 『坐禪三昧經』(대정장 15권 p. 271 하), “若多婬欲人不淨法門治, 若多瞋害人慈心法門治, 若多愚癡人思惟觀因緣法門治, 若多思覺人念息法門治, 若多等分人念佛法門治, 諸如是等種種病, 種種法門治.”

11) 鳩摩羅什 譯, 『坐禪三昧經』(대정장 15권 p. 269 상), “第五法門治等分行, 及重罪人求索佛, 如是人等當教一心念佛三昧, 念佛三昧有三種人或初習行, 或已習行, 或久習行, 若初習行人, 將至佛像所, 或教令自往諦觀佛像相好, 相相明了. 一心取持還至靜處, 心眼觀佛像, 令意不轉繫念在像不令他念, 他念攝之令常在像.”

로 과거 석가모니부처님의 모습이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형상을 보았듯이 형상이 온 것도 아니고, 나 역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심상(心想)으로 과거의 부처님을 본다.”¹²⁾

수행자는 염불을 통해 심상으로 부처님을 보았지만, 이 부처님의 형상이 어디서 온 것이 아니며 또한 자신이 간 것도 아님을 안다.

곧 이러한 심상(心想)의 한 부처님은 두 분의 부처님 나아가 시방의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부처님 색신(色身)을 보게 된다. 이미 부처님을 보았을 때는 또한 설법을 들을 수 있고, 혹 스스로 문기를 청한다면 부처님은 설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심의 그물을 풀어준다.¹³⁾

하지만 염불을 통해 삼매를 얻었다할 지라도 이는 아직 육계의 번뇌에 묶여 있는 수행자의 삼매이며 육계의 선정에 불과하므로 초선에 나아가기 위한 방편을 만들어야 한다¹⁴⁾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 관상수행으로서 염불은 초기에는 불세존이 행한 법과 여래의 명호를 대상으로 하다가 여래의 형상과 공덕을 대상으로 관념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어서 불상이 조성됨으로써 염불의 대상은 불상을 앞에 두고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심상을 관함으로써 분명하게 부처님의 색신을 보게 되는 것으로 나아간 것임을 알 수 있다.

2. 대승불교에서의 관상수행

『방광반야경』「무견요품(無堅要品)」은 아함경의 6념을 계승하고 있다. 보살이 반야비라밀을 행하려면 6념을 행해야 하는데, 6념 가운데 염불은 무념(無念)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¹⁵⁾

12) 鳩摩羅什 譯, 『坐禪三昧經』(대정장 15권 p. 276 상), “如是不已心不散亂。是時便得心眼見佛像相光明。如眼所見無有異也。如是心住。是名初習行者思惟。是時當更念言。是誰像相。則是過去釋迦牟尼佛像相。如我今見佛形像。像亦不來我亦不住。如是心想見過去佛。”

13) 鳩摩羅什 譯, 『坐禪三昧經』(대정장 15권 p. 277 상), “如是不亂。是時便得見一佛二佛乃至十方無量世界諸佛色身。以心想故皆得見之。既得見佛又聞說法言。或自請問。佛爲說法解諸疑網。”

14) 鳩摩羅什 譯, 『坐禪三昧經』(대정장 15권 p. 277 중), “爾時行者雖得一心定力未成。猶爲欲界煩惱所亂。當作方便進學初禪呵棄愛欲。”

15) 無羅叉 譯, 『放光般若經』(대정장 8권 pp. 120 하-121 중).

이에 반해 『대지도론』은 아함경의 10념을 계승하고 있다.¹⁶⁾ 10념¹⁷⁾ 가운데 염불삼매는 성문법에서의 염불과 보살도로서의 염불로 구분하고 있다. 성문법으로서의 염불삼매란 불신(佛身)에 대해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여 시방에 가득 하심을 보는 것이고, 보살도로서의 염불삼매는 한량없는 불국토 가운데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다. 염불삼매는 다른 삼매와 달리 염불삼매로써 3독을 포함한 갖가지의 번뇌와 죄를 제거하고 불도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문] 무엇을 염불삼매라 하는가?

[답] 염불삼매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성문의 법에서 한 불신(佛身)에 대해 마음의 눈으로써 관찰하여 시방에 가득하심을 보는 것이요, 둘째는 보살도로서 한량없는 불국토 가운데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량없는 불국토의 모든 부처님들의 삼매를 생각하니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다’고 말한다.

[문] 보살의 삼매가 갖가지로 한량이 없다면 어찌하여 보살은 이 염불삼매만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만을 찬탄하는가?

[답] 이 보살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까닭에 불도(佛道)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런 까닭에 염불삼매로써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염불삼매는 갖가지 번뇌와 전생의 죄를 제거하지만, 다른 삼매로는 능히 음욕을 제거하나 성냄을 제거하지 못한다. 또한 능히 성냄을 제거하나 음욕을 제거하지 못하고, 능히 우치를 제거하나 음욕과 분노를 제거하지 못하고, 능히 3독(毒)을 제거하나 전생의 죄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 염불삼매는 능히 갖가지 번뇌와 갖가지 죄를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염불삼매에는 큰 복덕이 있어서 능히 중생을 제도하하니, 이 보살들이 중생을 제도하려 함에 다른 삼매들 가운데 이 염불삼매만큼 복덕으로 모든 죄를 속히 없앨 수 있는 것은 없다.”¹⁸⁾

16) 龍樹菩薩 造,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대정장 25권 p. 406 하), “復次須菩提, 菩薩摩訶薩摩訶衍, 所謂十念, 何等十, 念佛念法念僧念戒念捨念天念滅念出入息念身念死.”

17) 『佛說法集經』(대정장 17권 p. 628 중)에서는 보살마하살의 心念處智는 無生智라고 하면서 보살의 열 가지 心念處를 들고 있다. 열 가지 심념처는 身念處, 受念處, 心念處, 法念處의 四念處와 念佛念處, 念法, 念僧, 念戒, 念捨, 念天의 6념을 합해 열 가지 心念處를 제시한다.

18) 龍樹菩薩 造,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대정장 25권 pp. 108 하-109 상), “問曰, 云何爲念佛三昧, 答曰, 念佛三昧有二種, 一者聲聞法中, 於一佛身心眼見滿十方, 二者菩薩道於無量佛土中, 念三世十方諸

염불삼매를 통해 부처님을 보게 되는 것은 마음을 가다듬기 때문이며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청정성으로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고 질문에 답하신다. 이로 인해 마음이 부처를 지었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법의 실상에 들어가는 것이니, 항상 공[常空]임을 깨치게 되는 것이다.

“보살마하살도 염불삼매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을 뵈옵는 것도 역시 그와 같나니, 마음을 가다듬기 때문이요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사람이 그의 몸을 장엄하고서 깨끗한 물에나 거울에다 비추면 모든 보이지 않음이 없지만 이 물이나 거울 속에는 역시 형상이 없으며 단지 밝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몸의 형상이 보이는 것과 같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청정한 것이라 보살이 청정한 마음을 잘 닦기 때문에 뜻을 따라 모든 부처님이 모두 나타나며 그 의심되는 것을 물으면 부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시므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을까. 나의 몸도 역시 가지 않았었다’고 하다가, 즉시 모든 부처님은 오신 데도 없고 나도 또한 간 데도 없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고는 다시 생각하기를 ‘三界(界)에 있는 것은 모두가 마음이 지은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염하는 것에 따라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뵈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지었으니, 마음이 곧 부처님이요 마음이 곧 나의 몸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또한 스스로 보지도 못한다. 만일 마음의 모양을 취하면 모두 지혜 없는 일이고 마음 또한 거짓이어서 모두가 무명(無明)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이 마음으로 인하여 곧 모든 법의 실상(實相)에 들어가게 되나니, 이른바 항상 공[常空]이다.”¹⁹⁾

佛。以是故言念無量佛土諸佛三昧常現在前。問曰。如菩薩三昧種種無量。何以故。但讚是菩薩念佛三昧常現在前。答曰。是菩薩念佛故。得入佛道中。以是故念佛三昧常現在前。復次念佛三昧。能除種種煩惱及先世罪。餘諸三昧有能除婬。不能除瞋有能除瞋不能除婬。有能除癡不能除婬害。有能除三毒。不能除先世罪。是念佛三昧能除種種煩惱種種罪。復次念佛三昧有大福德能度衆生。是諸菩薩欲度衆生。諸餘三昧無如此念佛三昧福德能速滅諸罪者。”

19) 龍樹菩薩 造,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대장장 25권 p. 276 중), “菩薩摩訶薩入念佛三昧。悉見諸佛亦復如是。以攝心故。心清淨故。譬如人莊嚴其身。照淨水鏡無不悉見。此水鏡中亦無形相。以明淨故見其身像。諸法從本以來常自清淨。菩薩以善修淨心。隨意悉見諸佛問其所疑。佛答所問。聞佛所說心大歡喜。從三昧起作是念言。佛從何所來。我身亦不去。即時便知諸佛無所從來。我亦無所去。復作是念。三界所有皆心所作。何以故。隨心所念悉皆得見。以心見佛以心作佛。心即是佛心即我身。心不自知亦不自見。若取心相悉皆無智。心亦虛誑皆從無明出。因是心相即入諸法實相。所謂常空。”

삼계에 있는 것은 모두 마음이 지은 것으로 삼계가 오직 마음이라는 내용은 『반주삼매경』에 나타나고 있다. 『반주삼매경』은 기원 전후 1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정토경전의 선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방의 아미타불과 그의 정토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반주삼매경』의 반주삼매란 현재에 불(pratyutpanna-buddha)이 눈앞에(sammukha, 現前) 머무르는(avasthita) 삼매(samādhi)를 말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발타화여! 그와 같느니라, 발타화여! 색(色)이 청정하면 비추어지는 것도 청정하여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하면 곧 친견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을 친견하였을 때 바로 여쭙면 묻는 즉시 대답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어디에서 오셨으며, 나는 어디로 간 것인가.’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처님께 서는 온 바가 없고, 나도 간 바가 없다.’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를, ‘육계·색계·무색계의 삼계는 뜻으로 만들어졌을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본다. 마음이 부처를 만들고 마음이 스스로 보므로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이 여래이며 마음이 나의 몸이니라. 마음이 부처를 보지만, 마음은 스스로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며 스스로 마음을 보지 못한다. 마음에 망상[想]이 있는 것을 어리석음이라 하고, 마음에 망상이 없는 것이 열반이라 한다. 이 법은 즐거워할 것도 없다. 모두 망념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만일 망념이 없으면 생각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없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²⁰⁾

『대지도론』과 『반주삼매경』의 내용은 앞서의 『좌선삼매경』의 내용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좌선삼매경』에서는 수행자가 심상으로 나타낸 부처님은 과거의 석가모니부처님이며, 부처님의 형상이 어디서 온 것이 아니며 자신이 간 것도 아니라는 자신의 삼매체험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대지도론』과 『반주삼매

20) 支婁迦讖 譯, 『般舟三昧經』(一名十方現在佛悉在前立定經)(대정장 13권 pp. 905 하-906 상), “佛言。善哉善哉。[颯-台+(发-义+又)]陀和。如是[颯-台+(发-义+又)]陀和。色清淨。所有者清淨。欲見佛即見。見即問。問即報。聞經大歡喜。作是念。佛從何所來。我爲到何所。自念佛無所從來。我亦無所至。自念三處。欲處。色處。無想處。是三處意所爲耳。我所念即見。心作佛。心自見。心是佛。心是怛薩阿竭。心是我身。心見佛。心不自知心。心不自見心。心有想爲癡。心無想是泥洹。是法無可樂者。皆念所爲。設使念爲空耳。設有念者亦了無所有。”

경』에서는 수행자의 삼매 체험속에 인식대상으로 나타난 부처뿐만 아니라 수행자 자신이 온 것도 아닐뿐더러 간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삼매체험은 삼계가 유심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²¹⁾ 또한 『좌선삼매경』에서 염불삼매는 조선 이전의 육계의 번뇌에 묶여 있는 육계의 선정이라고 한 반면 『대지도론』과 『반주삼매경』에서의 염불삼매는 마음의 청정성으로 공(空)한 상태이며 모든 법의 실상으로 들어가게 된다²²⁾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부처를 관상하여 얻게 되는 『반주삼매』의 내용은 대승불교와 그 이후의 의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Ⅲ. 의례로서의 관상

1. 의례에 관상의 섭입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 브라만교에서 행해지는 공희(供犧; yajña)나 푸자(pūjā)로 불리는 의례는 거부되었다. 공희는 인도에서 오래전부터 행해오던 불의 제사[火祭]였다. 제단을 쌓은 다음 불을 피우고, 여기에 제물을 던져 넣는다. 제물은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신들에게 바쳐진다고 생각하였다. 바라문들은 이 제사를 주술의 세계 속에 정립시켰다. 제물을 바치고 신들의 은혜를 기원하는 현세구복적인 의식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들에게 존경과 공물을 바치고 이로써 그 댓가를 얻는 것이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재산이었던 소나 양 등 동물의 피와 고기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문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사상가들은 브라만들이 행하고 있는 제사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서, 동물 희생과 함께 행해지는 공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들은 불살생(ahimsā)의 덕을 강조하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불살생의 윤리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21) 차상엽, 「觀想法의 형성 과정」, 『구산논집』 제11집, 2006.

22) 이와 함께 『大方等大集經』 「無盡意菩薩品」(대정장 13권 p. 186 중)에서는 보살들은 염불을 통해 염불삼매를 얻어 무생법인을 깨닫는다고 하고 있다.

감에 따라 신에 대한 예배형식은 공희를 대신하여 푸자라는 형식으로 바뀌어 갔다. 푸자는 신상(神像)을 안치하고, 신상은 신 그자체로 믿어져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봉사와 예배가 이루어진다. 의례를 통하여 신상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며, 물·향·꽃·불·음식물 등이 공양된다. 더울 때는 부채로 부치며, 큰 사원에서는 춤이 봉납되는 경우도 있다. 푸자에 의해 신들과 주고받음이라는 성격은 없으며, 오로지 존경과 봉사만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²³⁾

붓다는 방호주(防護呪)나 심성의 변화를 위한 몇몇의 주문을 제외한 대개의 주문과 브라만의 주술적인 의례는 금하였다. 당시에 의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배행위는 있었다. 붓다나 연장자인 비구에 대하여 그 제자나 재가 신자들은 합장으로 경의를 표하였으며, 윗사람의 두 발을 자신의 두 손으로 받들어 경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예배행위는 존경의 뜻을 표하는 당시의 관습에 따른 것일 뿐, 의례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붓다 입멸 후 불탑이 세워지면서, 불탑 둘레를 오른 쪽으로 3바퀴 돌고, 5체(이마, 양 무릎, 양 팔꿈치)를 땅에 댄 채로 예배했다. 동시에 힌두교의 푸자 방식이 도입되어 향·꽃·물·음식물 등을 바치거나, 후에는 가무음곡도 공양하였음이 산치 지방의 조각에서 확인되고 있다.

2세기 초엽 희랍조각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의 불교미술이 쿠산(Kushanans) 왕조의 제3대 카니시카(Kanishka, A.D 128~151)왕 때에 건축과 조형예술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마투라(Mathura)에서는 순인도풍의 불상과 보살상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보살상의 조성은 그것에 대한 예배의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예컨대 지겸(178~189)이 번역한『화적다라니신주경(華積陀羅尼神呪經)』에서는 “만약 선남자가 3월·4월·9월에 8일에서 15일까지 일십으로 여래의 상호를 억념하며 밤중에 화적신주를 세 번 외우고, 낮에도 또한 세 번 외운다. 보름이 되었을 때 향화(香華)·등축(燈燭)을 불상 앞에 공양하여 닦으며 아울러 화적다라니를 외우면 그 사람은 꿈에 여래를 보게 되니, 상호가 구족하고 연화좌에 앉아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²⁴⁾고 하였

23) 김치운, 「의례와 밀교」, 『인고 그리고 불교』, pp. 301-302, 올리브 그린, 2019.

다. 이는 2세기경에 불상 앞에서 향화등축을 공양하고 다라니를 독송하는 간단한 의례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또한 2세기 중엽쯤의 안세고(安世高)가 번역한 『마등녀경(摩鄴女經)』에는 외도의 작단법과 불의 제사 즉 호마(護摩)와 주문을 설하고 있지 않으나, 3세기 초엽 축율염(竺律炎)과 지겸이 함께 번역한 『마등가경(摩登伽經)』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모두 설하고 있다.

수계작법은 교단이 형성되면서 점차 정형화되어 갔으나, 성문승의 교단과 멀리하고 있던 초기 대승교단의 재가보살과 출가보살들은 십선계 등의 계를 성문승의 교단에서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용수의 저술로 알려진 『십주비바사론』 「호계품(護戒品)」에 의하면, 보살은 초지에서 염불을 통한 반주삼매로 부처님을 뵈고 제2지에서 백 분, 천 분의 부처님을 뵈고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십선계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

“곧 네 가지 일로써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게 되며
모든 부처님에게서
다시금 열 가지 착한 길을 받는다.

네 가지 일이란 의복, 음식, 침구, 의약이니, 그 밖의 뜻은 알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은 행을 지은 뒤에는
부처님으로부터 착한 길을 받으며
백천만 겁 동안에 이르기까지
무너뜨리지 않으며 또한 잃지 않는다.”²⁵⁾

즉 반주삼매에 의해 백천의 부처님을 뵈고 의복과 음식, 침구와 의약을 공양하

24) 支謙 譯, 『佛說華積陀羅尼神咒經』(대정장 21권 p. 875 상), “若善男子能於此華積神咒。若讀若誦。是人當於三月四月九月。從八日至十五日。一心憶念如來相好。夜中三誦華積神咒。日中亦三。至月圓時。當以香華燈燭於形像前而修供養。并誦華積陀羅尼咒。其人是夜夢見如來。相好具足坐蓮華座爲衆說法。”
25) 龍樹 造, 鳩摩羅什 譯, 『十住毘婆沙論』(대정장 26권 p. 109 중), “卽能以四事 供養於諸佛 能於諸佛所 復受十業道 四事者。衣服飲食臥具醫藥。餘義則可知 作如是行已 從佛受善道 至百千萬劫 不毀亦不失。”

고 부처님으로부터 십선계를 받는다라는 것이다. 보살이 반주삼매 즉 관불삼매를 통해 부처님으로 받은 계는 성문승이 승가로부터 받은 계와는 질적으로 달라서 백천만 겁에도 잃지 않는다. 성문의 율의계는 죽을 때까지라고 서약하면서 받기 때문에 목숨이 다하면 버리게 된다.

그런가 하면 『선비요법경』에서는 죄업장과 번뇌장을 소멸하기 위한 관불삼매의 관정법을 설하고 있다. 부처가 멸도한 뒤 참회하고 죄를 없애고자 하는 자는 불상을 관함으로써 청정해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²⁶⁾

죄업을 청정히 하기 위해서는 수행자는 먼저 불상(佛像)을 관하는 것로부터 시작한다. 탑을 소재하고 땅을 칠하고 참회하고 다시 불상을 관한다. 부처님의 모습이 분명하지 않으면 참회를 거듭하며 불상을 관한다. 불상을 관하여 32상 80종호가 분명할 때까지 관한다. 32상 80종호의 부처님이 분명해지면, 수행자는 이 부처님은 모습뿐이니, 세존의 위력과 지혜는 자재하시어 일을 지어시는 참 부처님을 관한다고 생각한다. 이때 금빛의 부처님이 물병을 들고서 수행자의 정수리에 물을 부음으로써 관정을 행한다.

“또 마땅히 생각[念]을 지어야 한다. ‘이는 곧 모습일 뿐이다. 세존의 위력과 지혜는 자재하여 지금 이 일을 지으신다. 나는 지금 마땅히 참 부처님을 분명히 관하여야 한다.’ 이 때 이어서 부처님의 몸을 보면 미묘함이 맑은 유리와 같고, 안에 금강(金剛)이 있으며, 금강 안에 자금광(紫金光)이 있어 서로 빛을 발하여 온갖 좋은 모양을 이루고, 32상과 80종호가 마치 무늬[印文]와 같아 병연(炳然)하여 밝게 빛나니, 미묘함과 청정함을 모두 말할 수 없다. 손에 조병(澡瓶)을 들고 공중에 머물러 서 계신다. 병 안에 물을 채웠는데 감로(甘露)와 같다. 그 물은 5색으로서 다섯 가지의 광명이 청정하기가 마치 유리구슬과 같아 유연하고 부드러운데 매끄럽다. 행자의 정수리에 부어 몸 안에 가득하다. 행자 스스로 몸을 봄에 물이 닿은 곳에 80호(戶)의 별레는 점점 말라 떨어진다. 별레가 말라 버리고 나면 신체가 유연(柔軟)하여 마음과 뜻이 쾌락하다. 마땅히 스스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자비의 아버지이신 여래께서 맛이 훌륭한 감로(甘露)의 법수

26) 鳩摩羅什等譯, 『禪祕要法經』(대정장 15권 p. 256 상), “佛告禪難提, 及敕阿難, 佛滅度後, 若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欲懺悔者, 欲滅罪者, 佛雖不在, 繫念諦觀形像者, 諸惡罪業, 速得清淨.”

(法水)를 나의 정수리에 부어주신다. 이 관정법(灌頂法)은 반드시 정(定)하여 허(虛)하지가 않다.’ 이 때 또 다시 마땅히 상념(想念)을 일으켜야 한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설법해 주십시오.’ 죄업을 없애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것이다.”²⁷⁾

수행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과 뜻이 열려서 오래지 않아 아라한과를 이룬다고 한다. 업장이 무거운 자는 부처님이 설법하여도 들리지 않게 되는데 그 때는 참회를 거듭하고 공덕을 쌓아 설법을 다시 듣는다. 또한 설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금 부처님의 관정을 받음으로써 마음과 뜻이 열리게 된다.

“업장이 무거운 자는 부처님께서 입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서 설법을 듣지 않으니, 마치 귀머거리와 같아 듣고 아는 것이 없다. 이 때 마땅히 또 다시 참회하여야 한다. 이윽고 참회하기를 마치면 오체(五體)를 땅에 던져 부처님에 대하여 흐느껴 울고,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온갖 공덕을 닦고, 그러한 뒤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 설법을 듣는다 하여도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세존께서 조병(澡瓶)의 물을 행자의 정수리에 붓는다. 물의 색은 변하여 순수한 금강의 색이 되고, 정수리 위로부터 들어가 그 색은 청(靑)·황(黃)·적(赤)·백(白)으로 각각 달라진다. 온갖 더럽고 잡된 상(相)이 그 안에 나타난다. 물은 정수리 위로부터 들어가 곧 바로 몸 안을 내려가 발뒤꿈치로 나와서 땅 속으로 흘러든다. 그 때 그 땅은 곧 변하여 광명이 되고, 크기가 한 길 가량이며, 내려가서 땅 속에 든다. 이와 같이 점점 곧고 깊게 들어가 물의 세계에 이른다. 물의 세계에 이르고 나면 마땅히 또 뜻을 지어서 이 광명을 따라 떠나야 한다. 또 이 물을 관함에 물의 아래는 순수하게 비어 있다. 마땅히 또 다시 관하여야 한다. 그 비어 있는 아래에 감색(紺色) 유리의 땅이 있고, 유리의 땅 아래에 금색(金色)의 땅이 있고, 금색의 땅 아래에 금강(金剛)의 땅이 있고, 금강의 땅 아래에 또 허공이 보인다. 이 허공을 봄에 활연하여 큰 허공은 모두가 소유(所有)함이 없다. 이 일을 보기를 마치고서 또 다시 마음을 거두어들여 앞에서와

27) 鳩摩羅什等譯, 『禪祕要法經』(대정장 15권 p. 256 중), “復當作念。此是影耳。世尊威力。智慧自在。現作此事。我今應當諦觀眞佛。爾時尋見佛身。微妙如淨琉璃。內有金剛。於金剛內。有紫金光。共相映發。成衆相好。三十二相。八十種好。猶如印文。炳然明顯。微妙清淨。不可具說。手執澡瓶。住立空中。瓶內盛水。狀如甘露。其水五色。五光清淨。如琉璃珠。柔軟細滑。灌行者頂。滿於身中。自見身內。水所觸處。八十戶蟲。漸漸萎落。蟲既萎已。身體柔軟。心意悅樂。當自念言。如來慈父。以此法水上味甘露。而灌我頂。此灌頂法。必定不虛。爾時復當更起想念。唯願世尊。爲我說法。罪業除者。聞佛說法。”

같이 하나의 불상을 관하여야 한다. 이 때 저 부처의 광명은 더욱더 빛나니, 모두 설할 수가 없다. 또 조병(澡瓶)의 물을 들어 행자의 정수리에 붓는다. 물의 모양과 광명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일곱 번을 한다.”²⁸⁾

이를 부처님께서서는 관상삼매(觀像三昧)라고 이름하고, 또 염불정(念佛定)이라고 이름하며, 또 제죄업(除罪業)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관상을 통한 반주삼매 즉 염불삼매는 부처님을 뵈는 것에서 나아가 죄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관정법까지도 관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초기 대승 교단에 재가보살과 출가보살이 관상을 통해 부처님을 뵈고 공양하고 계를 받는 수계작법까지도 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승불교에서 밀교적인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서 관상은 수행이면서 의례로 자리잡게 된다.

2. 밀교의례에서의 관상

작단법이나 호마의식 등이 『마등가경』에서는 외도의 의례로 표기되고 있으나, 굽타왕조에 이르러 제작된 불교경전에서는 불교의 의례로서 그들을 수용하고 있다. 인도는 4세기초 굽타왕조가 성립된 시기부터 큰 전환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 동안 수 세기 동안 그리스세력, 사카족, 중앙아시아출신의 쿠산왕조 등이 지배해 왔으나, 동인도 마가다 지방 출신인 굽타왕가에 의해 마우리아왕조 이래 처음으로 인도인에 의한 대제국이 수립된 것이다. 이는 인도 세력의 부흥으로, 굽타왕조시대에는 바라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중시되고 바라문교가 새로운 옷으로 바꾸어 입고 발전하는 시대이기도 하였다. 산스크리트가 중시되면서 바라문이 주도하는 사회, 관행, 종교의례 등이 다시 중시되었으며, 카스트제도가

28) 鳩摩羅什等譯, 『禪祕要法經』(대정장 15권 p. 256 중), “業障重者。見佛動口。不聞說法。猶如聾人。無所聞知。爾時復當更行懺悔。既懺悔已。五體投地。對佛啼泣。經歷多時。修諸功德。然後方聞佛所說法。雖聞說法。於義不了。復見世尊以澡瓶水。灌行者頂。水色變異。純金剛色。從頂上入。其色各異。青黃赤白。衆穢雜相。亦於中現。水從頂上入。直下身中。從足跟出。流入地中其地即時變為光明。大如丈許。下入地中。如是漸深。直到水際。到水際已。復當作意。隨此光去。復觀此水。水下淳空。復更當觀空下有紺琉璃地。琉璃地下有金色地。金色地下有金剛地。金剛地下復見虛空。見此虛空。豁然大空。都無所有。見此事已。復還攝心。如前觀一佛像。爾時彼佛光明益顯。不可具說。復持澡瓶水。灌行者頂。水相光明。亦如上說。如是七遍。”

고정되고 청정과 부정의 관념이 강하게 의식되었다. 바라문의 권위가 증대되고 마누법전을 계승하는 여러 법전이 작성되었으며, 이러한 법전에는 바라문의 입장을 반영한 다르마가 상세히 규정되었다. 이와 함께 당시의 불교도 이러한 힌두 세계의 여러 문화들을 의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5세기 초에 인도를 여행한 법현(法顯)은 마투라국의 승원에서 기악이 연주되는 예배나 공양이 행해지고 비구가 여기에 참가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²⁹⁾ 마투라에서는 매년 정해진 날에 승원 안에 조성된 사리불탑, 목련탑·아난탑 및 아비담탑·울경탑 등에서 갖가지의 향과 꽃을 공양하고 밤새도록 등을 밝히며, 예능인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제자가 출가하게 되는 인연을 공연케 하였다.³⁰⁾ 또한 파탈리푸트라에서 매년 음력 첫째 달 여드렛날에 거행되는 불사를 서술하고 있다. 4륜 수레 위에 탑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를 덮은 무명 형짚에 신들의 형상을 그려 놓았다. 사방의 감실에는 좌불을 안치하고 협시보살이 지켜선다. 이러한 수레가 20여대 가까이 있는데, 모두 장식이 다르다. 불사를 거행하는 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음악과 춤을 봉납하고 향과 꽃을 바친다. 이윽고 바라문이 와서 불상을 초청하면 불상은 차례 차례 성 안으로 들어와 하룻밤을 묵는다. 그날 밤은 밤새도록 등을 밝히고 기악을 봉납하여 공양한다.³¹⁾ 이러한 법현의 기록은 예배나 의례가 힌두교도를 포함한 일반인들의 참여속에 불교 승원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밀교의 의례는 320년에 순수한 인도혈통의 굽타왕조가 형성되면서부터 그 형태를 갖추어가기 시작한다. 이는 굽타왕조가 브라만교를 국교로 삼고 바라문의 문화를 부흥함에 따라 불교도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브라만 교학의 부흥에 대응하여 불교는 무착, 세친 등에 의해 불교의 이론체계와 수도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하였으며, 동시에 브라만교의 의례를 대폭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백시리밀다라가 한역한 『불설관정경』제5권 『불설관정주궁택신왕수진좌우경(佛說灌頂咒宮宅神王守鎮左右經)』에 의하면, 당시에 불교가 외도의 다양한

29) 나라야스야키 저, 정호영 옮김, 『인도불교』, p. 291, 민족사, 1994.

30) 법현 지음, 「고승 법현전」, 한글대장경 『高僧傳』 외, p. 508, 동국역경원, 1998.

31) 법현 지음, 「고승 법현전」, 한글대장경 『高僧傳』 외, pp. 523-524, 동국역경원, 1998.

술법(術法)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경전에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정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도들의 다양한 술법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보관보살(普觀菩薩)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술법의 갖가지 모습들을 짓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내가 만약에 세상에 있다면 이와 같은 모습의 법은 구할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이미 열반에 든 미래의 악세에는 오락의 중생이 바른 것을 믿는 자는 적고 샷된 견해에 많이 몰들어 참으로 바른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무리들을 위하여 이 장구(章句)와 다양한 술법들을 설하느니라. 군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까닭에 나는 이러한 다양한 장구를 내는 것이니 샷된 법이 아니니라. 많은 중성들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나, 여러 비구들은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경서(經書)를 보고 독송하는 자는 「이 법은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샷된 견해를 일으키며 비방하고 믿지 않느니라. 나는 전에 이미 비구를 보호하는 장(章)에서 비방의 허물과 각각의 허물들에 대해 말하였느니라. 만약에 듣는 자가 오직 응하여서 오로지 닦고 불신(不信)을 내지 않거나 행하는 자를 보고는 마치 큰 스승과 같이 여겨 공경하고 예배한다면 가히 큰 복을 획득할 것이며 불도(佛道)를 얻을 것이니라.”³²⁾

이러한 이념 하에 외도의 호마법이 『마등가경』에 나타나고, 462년에曇曜(曇曜)에 의해 한역된 『대길의신주경(大吉義神呪經)』에는 7종의 결계자단법을 설하고 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 비롯된 여러 존자들도 불교로 끌어들여 그 이름을 나열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기원의 내용을 달리하는 호마 공양법을 서술하고 있다.³³⁾

32) 帛尸梨蜜多羅 譯, 『佛說灌頂咒宮宅神王守鎮左右經』, 卷第五(대정장 21권 p. 511 하), “普觀菩薩復白佛言。作諸雜術種種相貌不似c07 耶也。佛言不也。我若在世不須如是相貌法也。我既涅槃未來惡世。五濁衆生信正者少。多習邪見不識眞正。爲此等輩說是章句雜法之術。以化群生故我出此雜辟章句非邪法也。以化萬姓諸比丘輩不解我意。見有書持讀誦之者。謂此法言非佛眞說。起邪見想誹謗不信。我已於前護比丘章。說諸誹謗愆各之過。若見聞者唯應專修勿生不信。見有行者恭敬禮拜如大師想。可獲大福至得佛道。”

33) 釋曇曜 譯, 『大吉義神呪經』(대정장 21권 p. 579 중), “佛告阿難若有讀誦此經者。當常食乳淨自洗浴著鮮潔衣。於一切人一生嫌心。於諸衆生當生慈心。於佛像前作諸天龍王像及餘鬼神。皆圖形象。以牛糞塗地作七重界。界場中央著諸華鬘。燒百一種香。爲佛燒蘇合香。薩闍賴闍香與摩醯首羅天。咄迦香與梵天。遮迦香與魔王。多迦羅香與化樂天。阿具婁香與他化自在天。婆羅娑香與兜率陀天。修富婁香與焰摩天。牛王香與帝釋。膠香與四天王。零陵香與伽羅龍王。熏陸香與毘摩質多阿羅漢王。那賴娑香與毘浮沙

7세기 전반기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는 『소실지갈라경(蘇悉地羯羅經)』, 『소바호동자경(蘇婆呼童子經)』, 『유희야경(蕤呬耶經)』 등에는 수법에 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 가운데 8세기 중엽에 선무외에 의해 한역된 『소실지갈라경』에서는 식재법, 증익법, 조복법 등의 3종의 호마법을 설하고 있다.³⁴⁾ 이는 외호마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불경계섭진실경』에서는 관상으로 이루어지는 내호마법이 설해지고 있다. 적정법(寂靜法), 조복법(調伏法), 구재법(求財法), 경애법(敬愛法), 증익법(增益法) 등 다섯의 내호마법이다. 이 가운데 적정호마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에 금강수보살마하살은 부처님의 위신을 이어받아 온갖 유가를 수행하는 행자를 위하여 진실한 내호마법(內護摩法)을 연설한다. 영원히 번뇌의 적 및 온갖 귀신을 조복시켜 멸하고자 하기에 이 호마를 지어서 삼매를 증장하고 각 본존과 아울러 본방의 색을 관한다. 만약 불부성취의 호마를 지으려면 유가행자는 비로자나여래를 자세히 관찰하고 이렇게 관상하라. ‘나는 바로 금강살타이다. 그 몸 가운데를 따라 백색의 빛을 유출하는 것은 맑은 유리와 같아 안과 밖이 환하다. 월륜 가운데에 결가부좌하면 나의 몸 가운데를 따라 광염이 솟아 나와서 곧 원광을 이루어 나의 몸을 장엄하는데 가장 뛰어나며 최고여서, 온갖 중생이 모두 다 기쁘게 바라본다.’ 다시 ‘사망의 모든 부처님은 모두 백색으로서 마치 삼천대천세계의 티끌처럼 많은데 내 몸 가운데로 들어온다’고 관상하라. 이것이 적정호마법이라 이름한다.”³⁵⁾

밀교의 호마법은 단(壇)에 화로를 두고서 불을 피우고 장작을 더하여 공물을 태워서 본존에 공양하고 번뇌업장의 소멸과 소원의 성취를 기원하는 밀교의 수법이다. 내호마는 화단(火壇)에 향하지 않고, 자신을 단으로 삼아 부처의 지혜의

羅刹王。多利娑香與地神。甲香與地夜叉神。毘羅貳香與放逸天。那賴陀香與十方鬼神如是等燒百一種香。各各於彼天像前燒。”

34) 輸波迦羅 譯, 『蘇悉地羯羅經』(대정장 18권 pp. 612 중-614 상).

35) 般若 譯, 『諸佛境界攝真實經』(대정장 18권 p. 상), “爾時金剛手菩薩摩訶薩。承佛威神。爲修一切瑜伽行者。演說真實內護摩法。永爲調伏滅煩惱賊。及一切鬼神故。作如護摩。增長三昧。各觀本尊并本方色。若作佛部成就護摩。瑜伽行者諦觀毘盧遮那如來。想我即是金剛薩埵。從其身中流出白光。如淨琉璃內外明徹。於月輪中結跏趺坐。從我身中光焰湧出。卽成圓光。莊嚴自身最勝第一。一切衆生悉皆喜見。想十方諸佛皆悉白色。猶如三千大千世界微塵數量。入我身中。是名寂靜護摩之法。”

불로써 내심의 번뇌나 업을 태우는 것을 가리킨다. 지혜의 불[智火]로 번뇌의 장작을 태운다는 것으로 외호마를 관상을 통하여 내면화 한 것이다.

『불설관불삼매해경』 9권에서는 간단하기는 하지만 불상을 공양한 후에 부처님을 관상하는 방법이 설해지고 있다. 즉 부처님께서 멀도하신 후에는 부처님께서 안 계시므로 마땅히 불상을 관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불상을 관찰하려면 먼저 불탑에 들어가서 좋은 향과 진흙과 보통의 흙으로 땅을 발라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는 향을 사르고 꽃을 흩뿌리며 불상에게 공양하며, 자기의 허물과 악을 말하고 부처님께 예배하며, 참회하여 이와 같이 마음을 조복하여 7일을 보낸다. 또한 출가자는 여러 스님들 앞에서, 재가자는 부모와 스승과 어른들 앞에 나아가서 공양하고 공경하며 마음을 조복하기를 7일간 행한다. 마음이 유순해지면 부처님 전에 나아가 가부좌하고 몸을 안온하게 한다. 몸이 안온해지면 불상의 발가락으로부터 차례로 우러러보며 관상에 들어간다³⁶⁾고 하였다.

하지만 『금강정유가중약출염송경』에서는 세욕(洗浴)하는 법을 설하는 가운데, 윤단(輪壇)과 오부(五部)를 관상하고 불보살과 천(天)에 대한 공양을 마치고는 본 윤단과 자신이 함께 됨을 관상하는 내용을 설하고 있다.

“다음에 여래의 최상의 윤단(輪壇)은 수중(水中)에 있다고 관상하고, 아울러 오부(五部)는 윤단의 위에 있다고 관상하라. 밀어와 인계 등으로써 그 물[水]을 맑게 가지하여, 세욕의 일을 마친다. 곧 양손으로써 청정한 향수를 바르고 소지한 밀어를 송하고 이를 가지하여, 이로써 일체의 제불과 모든 대보살마하살 및 본천(本天) 등에 공양한다. 이미 공양하고 나면 곧 저 윤단이 모두 자기 몸에 들어온다고 관상하라.”³⁷⁾

오부란 단내(壇內)의 여래부, 금강부, 보부, 연화부, 갈마부의 불보살님을 일컫는다. 윤단과 오부의 불보살님들을 관상하고 이들 불보살님들에게 공양하고는

36) 불타발타라 한역, 『불설관불삼매해경』, 한글대장경 『개원석교록』 2 외, pp. 625-626, 동국역경원, 2000.

37) 金剛智 譯,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대정장 18권 p. 225 상), 次想如來最上輪壇在於水中, 并念想五部在輪壇上。以密語契等加淨彼水, 洗浴事畢, 即以兩手掬清淨香水, 誦所持密語加之。以供養一切諸佛諸大菩薩摩訶薩及本天等。既供養已即想彼輪盡入己身。”

그 윤단과 불보살님들과 하나가 됨을 관상함으로써 불보살의 가지(加持)를 입게 되어 실지(悉地)를 성취한다고 여겨진다.

『제불경계섭신질경』에서는 유가행자가 관상과 진언, 인계를 통해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을 성취하고 나아가 십육 금강보살의 공덕과 지혜를 성취해가는 과정들을 설하고 있다.

“다음에 유가행자는 이와 같이 관상하라.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은 지금 마땅히 강림하시어 위덕대신통력(威德大神通力)을 시현하신다.’ 이렇게 관상하고 나서 다시 응당 석가여래 성도(成道)의 법을 관찰해야 한다. 석가보살께서는 보리수에 가까운 곳 1우순 안에서 온갖 고행을 닦고 6년을 채워서 불도 성취하기를 원하여 보리수에 나아가 금강좌에 앉아 금강정에 들어가신다. 이때에 비로자나여래께서 이를 보시고서 보리수의 금강도량에 이르러, 수없는 화불을 시현해서 허공에 두루 가득참이 마치 티끌처럼 많았는데, 각각 함께 소리를 같이 하여 보살에게 고하신다. ‘선남자여! 어찌하여 성불의 법을 닦지 않는가.’ 보살이 듣고 나서 경건히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드린다. ‘저는 아직까지 성불의 법을 모르오니 원컨대 자비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보이소서’ … 다음에 금강살타보살을 바르게 관하라. 유가자여, 유가행자 스스로 관상하라. ‘나의 몸은 금강살타이고, 나의 말은 금강이고 나의 마음은 금강, 나의 몸의 색 내지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과 온갖 중생, 그리고 시방세계의 산천과 강, 연못, 초목, 수풀이 다 청색이다.’ 이렇게 관하고 나서 곧 오른손으로써 금강권을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그 손바닥 가운데에 넣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견고히 엄지를 잡고 마땅히 마음에 안치하고 다음에 왼손으로써 금강권을 하고, 왼쪽 허리 위에 두라. 이를 금강불퇴전인(金剛不退轉印)이라 이름한다. 이 수인을 결하고 이와 같이 관상하라. ‘나는 지금 아직 성불하지 못한 이래 항상 퇴전하였지만, 비로자나여래를 공경하고 공양한다면 곧 이 금강불괴불퇴삼매(金剛不壞不退三昧)를 얻으리라.’ 불퇴전인을 결하고 진언을 송한다.”³⁸⁾

38) 般若譯, 『諸佛境界攝眞實經』(대정장 18권 p. 273 중, 277 상), “復次瑜伽行者。作如是想。諸佛菩薩今當降臨。示現威德大神通力。作此想已。復應觀察釋迦如來成道之法。如釋迦菩薩。近菩提樹一由旬內。修諸苦行。滿足六年願成佛道趣菩提樹坐金剛座入金剛定。爾時毘盧遮那如來。觀見是已。至菩提樹金剛道場。示現無數化佛。遍滿虛空猶如微塵。各共同聲告菩薩言。善男子云何不求解佛之法。菩薩聞已。虔恭合掌。白佛言。我今未知成佛之法。唯願慈悲示菩提路。… 復次正觀金剛薩埵菩薩。瑜伽行者自觀。我身是金剛薩埵。我語是金剛我心是金剛。我身之色。及諸佛菩薩一切衆生。十方世界山川河池草木叢林。悉皆

유가행자는 관상과 인계와 진언으로 오상성신관을 통하여 불신(佛身)의 원만함을 얻고, 십육의 금강보살의 몸을 증득하여 그 공덕과 지혜로써 중생 교화의 불사를 짓는 것이다. 이것은 관상과 인계와 진언이 의례의 실행과 함께 성불과 중생 교화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IV. 나오는 말

아함경류에 의하면 관상수행은 6년에서 10년으로 염(念)의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염불은 불세존이 행한 법을 염하거나 여래의 열 가지 명호를 염하는 것에서 여래의 형상을 관하고 여래의 공덕을 염하는 것으로 변화하여 왔다. 이어서 불상이 조성되자 염불의 대상은 불상을 앞에 두고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심상을 관함으로써 분명하게 부처님의 색신을 보게 되는 것으로 나아간다. 염불의 결과로는 열반에 이른다고도 하나, 천상에 이른다고도 하고 『좌선삼매경』의 경우는 초선에 이르기 전의 육계 선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정하지가 않다.

하지만 『대지도론』이나 『반주삼매경』 등 대승불교에서는 염불삼매에 의해 나타난 모든 부처는 수행자의 마음이 지어낸 것으로 삼계가 유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염불삼매는 마음의 청정성으로 공(空)한 상태이며 모든 법의 실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이는 유식불교의 수행단계에서 본다면 견도에 해당하며 보살의 초지인 환희지에 해당한다.

관상이 의례에 섭입되는 것은 불상 앞에 향화 등축으로 공양하고 염불삼매를 얻기 위해 불상을 관하는 것에서 보여진다. 또한 부처를 관하여 염불삼매 즉 반주삼매 속에서 부처로부터 십선계를 받거나, 관정을 받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밀교의 사상(事相)들이 성불을 위한 방편으로 정립되면서 관상은 인계와 진언과 더불어 실지성취로 가는 내용이 되고 있다. 밀교에서 실지성취의 대표적인 의

靑色。作此觀已。卽以右手作金剛拳。以大拇指入其掌中。以餘四指堅握拇指。安置當心。次以左手作金剛拳。安左腰上。此名金剛不退轉印。結此手印。作如是想。我今未得成佛已來常不退轉。恭敬供養毘盧遮那如來。卽是獲得金剛不壞不退三昧。結不退轉印持眞言曰。”

례로 손꼽히는 호마법이 관상으로 이루어지며, 윤단(輪壇)과 오부(五部)의 불보살님들을 관상하고 공양을 올리고는 그 윤단과 불보살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관상하여 불보살의 가치를 도모한다. 더 나아가 『제불경계섭진실경』에서는 유가행자가 관상과 더불어 인계와 진언으로 오상성신관을 성취하고 십육의 금강보살을 관상함으로써 각 금강보살의 지혜와 공덕을 성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불 때 관상은 수행의 중요한 한 방편이며, 의례에서는 시작점이며 빠져서는 안되는 핵심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 求那跋陀羅 譯, 『雜阿含經』(대정장 2권).
失譯, 『別譯雜阿含經』(대정장 2권).
僧伽提婆 譯, 『增壹阿含經』(대정장 2권).
鳩摩羅什 譯, 『坐禪三昧經』(대정장 15권).
無羅叉 譯, 『放光般若經』(대정장 8권).
龍樹菩薩 造,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대정장 25권).
菩提流支 譯, 『佛說法集經』(대정장 17권).
支婁迦讖 譯, 『般舟三昧經』(一名十方現在佛悉在前立定經)(대정장 13권).
曇無讖 譯, 『大方等大集經』「無盡意菩薩品」(대정장 13권).
支謙 譯, 『佛說華積陀羅尼神咒經』(대정장 21권).
龍樹 造, 鳩摩羅什 譯, 『十住毘婆沙論』(대정장 26권).
鳩摩羅什等 譯, 『禪祕要法經』(대정장 15권).
安世高 譯, 『佛說摩鄧女經』(대정장 14권).
竺律炎 共 支謙 譯, 『摩登伽經』(대정장 21권).
帛尸梨蜜多羅 譯, 『佛說灌頂咒宮宅神王守鎮左右經』 卷第五(대정장 21권).
曇曜 譯, 『大吉義神呪經』(대정장 21권).
輸波迦羅 譯, 『蘇婆呼童子請問經』(대정장 18권).
大唐大興善寺開府儀同三司試鴻臚卿三藏和尚 譯『蕤呬耶經』(대정장 18권).
輸波迦羅 譯, 『蘇悉地羯囉經』(대정장 18권).
般若 譯, 『諸佛境界攝真實經』(대정장 18권).
金剛智 譯,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대정장 18권).
법현 지음, 「고승 법현전, 한글대장경 『高僧傳』 의, 동국역경원, 1998.
불터발타라 한역, 『불설관불삼매해경』, 한글대장경 『개원석교록』 2 의, 동국역경원, 2000.
김치은, 「의례와 밀교」, 『인고 그리고 불교』, pp. 301-302, 올리브 그린, 2019.
차상엽, 「觀想法의 형성 과정」, 『구산논집』 제11집, 2006.
나라 야스야키 저, 정호영 옮김, 『인도불교』, p. 291, 민족사, 1994.
明神 洋, 「禪觀經典における念佛觀」, 『佛教學』 제35호, 山喜房佛書林, 1993.
阿部貴子, 「界 Dhātu의 觀想」, 『밀교학연구』 44, 2012.

ABSTRACT

A Review of the Contemplation as a Practice and Ritual

Kim, Chi-On

Research Prof., University of Seoul Buddhist Graduate School

According to Āgama, The practice of contemplative meditation has been expanded from six to ten thoughts. Among them, The thought of Buddha has changed from thinking the laws of the Buddha or thinking the ten names of the Tathagata to contemplating the image and virtues of the Tathagata. Subsequently, when the Buddha statue was formed, the object of thought begin by observing the Buddha image in front of it, and progresses to clearly seeing the Buddha's body by contemplating the image. It is said that one reaches nirvana as a result of the thought of Buddha, but it is not constant as it is said that one reaches heaven.

In Mahayāna Buddhism, all the Buddhas that appeared by the Samādhi of the thought of Buddha(念佛三昧) were made up by the mind of the practitioner and made it clear that the three worlds are idealistic. In addition, The Samādhi of the thought of Buddha is said to be empty due to the cleanliness of the mind and enters the reality of all laws.

Contemplation is included into the ritual, that offerings are made with flowers and lanterns in front of the Buddha statue, and Buddha statue is related to obtaining the Samādhi of the thought of Buddha. In addition, receiving the ten commandments or the pouring water in head(灌頂) during the thought of Buddha in the samādhi, can be considered a step forward.

As the Esoteric Buddhism ideas are established as a means for attaining Buddhahood, contemplation is becoming the content that leads to actual Siddhi along with the Mudrā and Mantra. In Esoteric Buddhism, contemplation is performed in Homa, which considered one of the representative rituals of real achievement.

Furthermore, the practitioner achieves the wisdom and virtue of each Vajrabodhisattva by contemplating the sixteen Vajrabodhisattvas after achieving the Five-fold meditation through Mudrā and Mantra along with the contempl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een that contemplation is an important means of practice, a starting point in rituals, and a core content that must not be omitted.

Keywords : contemplation, the six thoughts, the thought of Buddha, the Samādhi of the thought of Buddha, dealistic the triple world, the contemplation of the receiving commandments, the contemplation of the pouring water in head, the contemplation of the Homa, Siddhi

투고 일자: 2021년 07월 13일

심사 완료: 2021년 08월 10일

게재 확정: 2021년 08월 20일